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에 대한 연구: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과 형성과정 및 발전 전망 [1)]

최우익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러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본 고에서는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비즈니스 엘리트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경제 구조를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다. 또한 이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주도 집단이자, 한편 오늘날 지배 엘리트의 물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비즈니스 엘리트는 자신의 정치 권력을 경제적 소유권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당, 산업, 꼼소몰 노멘끌라뚜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활동과 자본을 합법화시키고자 했던 지하경제의 범법자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여 비즈니스에서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기술과 인문 계통의 인텔리겐챠 등의 출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1980년대 말 일반 국민에 앞서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 노멘끌라뚜라 사유화 과정 속에서 주요 사회 집단으로 형성되어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권력과 본격적으로 유착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주로 소비에트 노멘끌라뚜라 출신자들이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점차 과거의 지배 엘리트와는 연관이 없었던 인텔리겐챠 출신자들이 조역에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 적응력이 빠른 젊고 새로운 세대의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등장은 앞으로 계속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교체가 과연 진정한 변화인가에는 의구심이 있다. 소비에트 시대의 지배층 출신이 아니며 또한 보다 젊은 세대의 비즈니스 엘리트가 새로운 대기업가들로 부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오늘의 위치에 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는 지배층 인물들과의 연줄 속에서, 그리고 후원 속에서 성장했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 하의 러시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엘리트 세대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여전히 전체 지배 엘리트 체제 유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비즈니스 엘리트, 노멘끌라뚜라, 러시아 사회계층

Ⅰ. 서론

러시아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고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10년 간 언론매체나 학자들, 그리고 러시아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입에 올려진 단어들 중의 하나가 바로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엘리트는 때에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KRF-99-043-C00054).

따라 재벌, 대기업가, 신 러시아인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졸부나 벼락부자로도 불리던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러시아 국민 대중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낸 시점은 1996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이다. 당시 공산당 진영의 대통령 후보인 쥬가노프(Г. А. Зюганов)에 비해 열세에 몰려있던 옐친(Б. Н. Ельцин)을 지지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뭉쳤고 이들의 지원(자금, 선전, 정보 등의 측면)은 결국 옐친이 박빙의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 큰 힘이 되었다. 이후로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이름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공공연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러시아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대한 인물들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엘리트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지에 대한 개념 규정의 문제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에서 정치 엘리트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지배 엘리트의 구조에서 독자적이고 일정한 요소로서 비즈니스 엘리트 혹은 경제 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최근 수년에 이르러 아주 급속히 등장한 것이다. 현대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부족한 연구는 러시아에 오랜 기간 자본이 인격화되지 않았고 서구에서와 같은 전통적인 사유재산제 관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회가 급속히 시장경제 체제의 사회로 들어왔음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유화 과정은 아마 다른 어떤 곳보다도 특히 두드러지게 러시아에서 정치와 자본의 관계를 밀착시키면서 비즈니스 엘리트를 초미의 관심사로 드러나게 하였다.[1)]

비즈니스 엘리트는 경제 엘리트와 동의어처럼 쓰일 때가 많은데, 개념적으로 경제 엘리트란 '그들의 법적 소유형태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금융-경제 구조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즉, 소비에트 시대부터 존재했던 국영 기업의 관리(지도)자(руководитель)들인 기업소장(директор)과 보통 오늘날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불리는 비국영 업체의 관리자들(소유자 혹은 매니저들)이 그들이다(Куколев, 1995a: 159). 따라서 같은 경제 엘리트의 범주에 들어가면서도 특히 오늘날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사기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제 엘리트 집단을 과거의 소비에트 국영 기업의 관리자(또한 지금도 일부 국영기업체와 이것을 관리하는 일부 기업소장이 남아 있다)와 구분하여 강조하고자 할 때 그들을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들 집단들 간의 경계는 국영기업이든 비국영기업이든 기업의 대중적인 주식화로 인해 뚜렷한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비즈니스 엘리트의 대열로 다수의 과거 국영 기업체 관리자들이 이동함으로 인해 용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상에서 이들은 서로 섞여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

1)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들로는 Куколев(1995a, 1995b, 1996), Бунин(1994, 1996), Крыштановская(1993, 1995, 1996), Kryshtanovskaya & White(1996), Hughes(1997), Lane & Ross(1999)의 논문을 참조.

영기업 관리 출신자들은 사적인 주식회사의 관리자로 자신의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들이 지녔던 행정명령체계하의 '산업 사령관단(промышленный генералитет)'의 모든 기본적인 성질과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여러 가지 측면의 규모를 구분하면서, 기업가 계층에서 상층 부분인 대기업가를 비즈니스 엘리트라고 하고 이에 대비되는 하층 부분을 중·소기업가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 소기업체에 대한 정의는 종사자들의 규모 면으로 본다면, 산업, 건축, 교통 분야 - 100명 이내, 농업, 과학·기술 분야 - 60명 이내, 도매상 분야 - 50명 이내, 소매상, 서비스 분야 - 30명 이내인 기업체를 말한다.[2]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적 정의 등에서 나타나는 종사자상의 규모로 중·소기업가와 비즈니스 엘리트를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비즈니스 엘리트(혹은 경제 엘리트)가 그들의 법적 소유형태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금융-경제 구조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반대로 중·소 기업가는 이러한 통제력을 소유하지 못한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즉, 각종 규모적인 측면들(자본, 종사자 등등)도 고려될 수 있지만, 이 두 집단 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금융-경제 구조를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가 아닌가에 있다.[3]

이렇게 비즈니스 엘리트가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경제 구조를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이들이 정치 엘리트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료 및 정치 엘리트는 비즈니스 엘리트와 유착관계에 있고, 많은 기업소장과 비즈니스 엘리트는 새로운 지배층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4] 그런데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정치 엘리트와의 결합은 당이나 공식적인 이익집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개별적인 통로나 로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Зудин, 1999: 46-48). 따라서 그들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위계 질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정치 엘리트와 개별적

2) 법령 『러시아 연방 소기업의 국가지원에 대하여』 (1995.06.14) 에 명시. 여기서 중(규모)기업에 대한 명시나 중기업의 규모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다.

3) 비즈니스 엘리트의 경험적 범주 규정을 위해 꾸꼴레프 (И. В. Куколев)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전문가들(기업가들, 관리들, 그리고 경제 문제 전문가인 기자들, 그리고 정당과 연합체의 지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대중정보매체의 내용을 검토하고, 형태적인 특징(개인적인 재산과 통제되는 자본의 산정)과 미형태적인 특징(사회적 위치와 활동 분야, 개인적 혹은 연합체에서의 (정치적) 권위)에 따라 총체적으로 정의되는 금융-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 여름 시점에 563명의 비즈니스 엘리트를 선정하였다. Куколев, 1995(a)의 논문을 참조.

4) 이와 같이 비즈니스 엘리트는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의 러시아 학자들은 비즈니스 엘리트를 '올리가르히야(олигархия)'의 개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올리가르히야는 보통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대규모의 금융과 산업 조직의 소수 지도자 집단'을 일컫는다(Зудин, 1999: 45). 이외로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에 올리가르히야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와 관점에 대해서는 Кива (2000: 18-21)의 논문을 참조.

인 차원에서 은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비즈니스 엘리트간에 협력뿐이 아니라 대립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인 과두체제로부터 축출될 수도 있고, 반대로 권력 엘리트로 진출할 수도 있다. 즉, 특정한 사회적 토대나 기반이 없는 비즈니스 엘리트는 권력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초법적인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권력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미움을 산다면 몰락할 수도 있다.

사회계층구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즈니스 엘리트는 시장경제화의 직접적 산물인 비즈니스 계층의 최상층부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정치 엘리트와 함께 지배 엘리트의 한 구성부분이기도 하다.[5] 비즈니스 엘리트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주도 집단이자, 한편 오늘날 지배 엘리트 내에서 과거 소비에트 시대에서는 가능하지 못했던 물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2장 1절에 후술).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부터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몇몇 그들에 대한 정의나 특징들이 도출되었지만, 여전히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다.

본 고에서는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전반적인 형성 과정을 살펴보되, 특히 그들의 기원 규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 러시아 학자들간에 '노멘끌라뚜라의 재생산'과 '새로운 물결에 의한 충원'의 입장이 대비된 바 있었다(이에 대해서는 2장 2절에 후술).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면서 도출된 것들이었다. 사실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을 규명하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정의와 성격, 그리고 발전 전망,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러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대상 시기의 다음 시점인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즉 비즈니스 엘리트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윤곽이 드러나게 된 시점 이후인 1995년에서 2001년까지 매년 10대 기업가의 대열에 포함되었던 비즈니스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적 출신, 경력, 자본을 축적하거나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등을 분석하면서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 규명의 문제에 대해 고찰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의 2장에서는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 규명을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소비에트 시대의 지배 계급과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 논쟁에 대해 약술하고, 3장에서는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배경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들의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본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규명의 문제를 정리하면서 그들의 발전 전망에

5) 사회계층구조에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위치에 대해서는 최우익(2001)의 논문을 참조.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II.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

1. 소비에트 시대의 지배계급

1985년부터 소비에트 연방과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변화 과정의 원인과 의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사회의 내부 모순(이것은 또한 소비에트 사회의 개조를 야기했다)을 파헤치고 그것의 자기 발전의 내재적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부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비에트와 러시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주인공인 소비에트연방 공산당의 당-국가-산업 노멘끌라뚜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여타의 조직화된 사회 정치적 세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러시아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멘끌라뚜라는 사회주의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가 진행되었던 페레스트로이카와 후기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유력한 개혁의 원동력이었다. 러시아에서 최근에 경과하고 있는 변화 과정에 대해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의 노멘끌라뚜라의 역할을 이해하지 않고는 변화의 논리, 성격, 방향성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여러 사건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노멘끌라뚜라'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의 공산당 당 교육기관의 교과서에 따르면, '해당 당 위원회(구, 도시, 주 등)에 의해 사전에 후보로 심의되고, 건의되고, 확정되는 가장 중요한 직위의 목록이다... 노멘끌라뚜라에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Партий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М., 1981, с. 300).' 다시 말해 노멘끌라뚜라는 상급기관에 의해 임명되는 주요 직위의 목록이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 직위의 사람들을 경질하고, 그 뿐 아니라 위에서 그들을 새로이 임명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또한 노멘끌라뚜라로 불리게 되었다. 노멘끌라뚜라 체제의 핵심은 모든 관리 임명에 대한 당 기관의 통제권이다. 이러한 권한은 공산당에게만 있었으며, 이것은 수직적인 당의 통로(피라미드형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바로 이 사회적 집단이 자신의 손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기본적 요인들(권력, 이데올로기, 경제관리)을 독점하면서 소연방의 지배계급이 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에 당 노멘끌라뚜라는 약 50만 명(농촌의 공산당 구 위원회로부터 공화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당 중앙위의 위원과 후보, 당 중앙위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 등 '당의 당'이라 할 수 있는 핵심인물들은 약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Оников, 1996: 41, 75).

하지만 당 노멘끌라뚜라 이외에도 또한 수많은 국가와 산업 노멘끌라뚜라가

존재했다. 당뿐이 아니라 행정, 산업, 노동조합, 군사, 외교 분야 등 어떤 중요한 자리도 노멘끌라뚜라 체제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소비에트의 전체주의적 성격에서 가능했다. 이러한 체제에서 당과 국가는 결합되어 있다. 국가 조직의 지도부는 공산당에 의해 임명되었고, 또한 공산당원만이 지도부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정관료 집단은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Оников, 1996: 136).

따라서 소비에트 지배계급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두 부류, 즉 지배(господство)의 위치에 있는 고위 공산당원들과 지도(руководство)의 위치에 있는 관리 엘리트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조직관리를 담당하며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노멘끌라뚜라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 노멘끌라뚜라와 산업 노멘끌라뚜라간의 경계는 명확한 것이 아니며, 거의 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6]

노멘끌라뚜라의 물질적 기초는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사적 소유의 국유화는 실질적으로 당-국가의 집단적 소유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따라서 당-국가의 형태로 조직화된 노멘끌라뚜라가 이른바 소연방의 사회적 소유물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다.

현실에서 이 새로운 계급의 소유는 특권적 관리권을 통해서 실현된다. 노멘끌라뚜라의 삶의 질은 (설령 그들의 봉급이 평균 노동자 임금의 몇 배에 달하더라도) 단지 월급의 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멘끌라뚜라는 자신의 존재를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의 수입이나 특혜는 권력의 위계 사다리에서의 위치, 즉 자신이 점하고 있는 직위, 권력과 경제관리의 참여 권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7]

그런데 노멘끌라뚜라의 물질적 특혜는 소비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즉, 그들의 수입은 자본으로 전화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들은 자본을 축적할 수도 없으며,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도 없고, 생산에 투자할 수도 없으며, 후손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또한 소비에트 시대의 노멘끌라뚜라는 어떠한 특권도 향유할 수 있지만, 만약 자신의 직위를 버리거나 당에서 나온다면 모든 특권을 상실한다. 하지만 기존의 체제에서는 단지 관리자의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관리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노멘끌라뚜라로서 지녔던 모든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시도가 바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반전체주의 혁명'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

6) 노멘끌라뚜라에 어떠한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한 예로써, 1981년 공산당 26차 대회에서 선출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화국과 주 수준의 당위원회 비서가 35%,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구분과 종사자가 9%, 각 부의 관리가 31%, 군인 7%, 외교관 4%, 학자와 문화종사자가 3%, KGB 종사자가 2%, 노동조합 활동가가 2%이다(Хоскинг, 1994: 390).

7) 소비에트 시대의 권력구조 내에서의 직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 계급·계층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최우익(2000)의 논문을 참조.

즉, 소비에트 시대의 노멘끌라뚜라는 몇 단계에 걸쳐 변화를 겪게 되는데, 노멘끌라뚜라 1세대는 1920-30년대에 스탈린에 대한 개인적인 복종과 직위의 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2세대의 출현은 1940년대 말 세계 제 2차 대전의 승전으로 인한 군 출신자들의 지위 상승으로부터 시작하여 흐루시초프의 개혁에 따른 노멘끌라뚜라의 새로운 충원과 내부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3세대는 1960-70년대의 브레즈네프 시대에 형성된 집단으로서, 체제의 안정이 가장 커다란 목표였던 이 시기에 노멘끌라뚜라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공산당과 노멘끌라뚜라 체제(설령 그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를 무너뜨렸다.[8] 이 때 노멘끌라뚜라는 스스로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는 놀라운 변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준비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소위 '노멘끌라뚜라 사유화'를 통해서 달성된다. 이 과정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집단은 노멘끌라뚜라 중에서도 바로 1960년대 흐루시초프의 개혁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디렉또르(기업소장) 계급'이다(Перегудов и др, 1999: 100-101). 아주 전문적이고 독립심이 강했던 이들은 이미 본격적인 시장경제개혁 이전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업의 법적, 현실적 소유주가 되고자 열망했었다. 이제 노멘끌라뚜라는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힘을 새로운 경제적 지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제의 전환은 당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약화, 지배계급 내부의 부패(특히 마피아와 지하범죄와 관련하여), 기존 사회주의 체제하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침식과 쇠퇴를 야기했다. 바로 이 때 노멘끌라뚜라는 '특권적 관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실질적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이 위기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의 탈국유화와 시장경제화에 기꺼이 동참하게 된 것이다.

2.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1980년대 중후반 개인노동활동(1986), 협동조합(1987), 국영기업(1987), 기업임대(1988), 기업과 기업가 활동(1990)에 대한 새로운 법령들이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 소연방이 붕괴되기 직전인 1990년 말에 이미 전국에는 245,000개의 협동조합(국영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과도적 형태)에서 6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1991, №. 20: 12). 즉, 1992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바우처 사유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사실상 국영기업의 사기업화가 시작

8) 소비에트 시대 노멘끌라뚜라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Пихоя(2000)의 논문을 참조.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날의 비즈니스 엘리트는 이 시기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즈니스 엘리트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사실상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와 목표로 시장경제활동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 규명의 문제는 차후 본격적으로 형성될 비즈니스 엘리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보다 앞서서 시장경제적 기업활동을 시작한 집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자신의 동기와 목표를 가진 집단들로 정리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됨).

1. 자신의 권력을 소유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당, 산업, 꼼소몰 노멘끌라뚜라,
2. 자신의 활동과 자본을 합법화시키고자 했던 지하경제의 담당자들(사실상 노멘끌라뚜라 부패 체제와 관련된 집단),
3.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여 '비즈니스'에서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기술과 인문 계통의 인텔리겐챠(Исаев, 2000(a): 176).

그런데 이와 같은 집단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비즈니스 엘리트로 전환되었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이 집단들 중에서도 어떤 집단이 과연 보다 중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이것은 특히 위에서 1의 집단인가, 3의 집단인가에 대한 견해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오늘날의 비즈니스 엘리트를 어떠한 성격의 집단으로 보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가 맞이한 체제전환의 결과와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현대 엘리트 일반에 대한 초기 연구자로는 끄릐슈따놉스까야 (О. В. Крыштановская)를 들 수 있다. 그녀는 페레스트로이카 기간 '꼼소몰 경제' 하의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ЦНТТМ)나 청년 주택 협동조합(МЖК), 주택 건축 협동조합(ЖСК)과 같은 최초의 경제 조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조직들이 오늘날 바로 비즈니스 엘리트의 거대한 상업 조직의 태아가 되었다고 말한다(Крыштановская, 1995: 53-59).

그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특권적인 경제 조직들이 비즈니스 엘리트 창출의 기초를 마련하면서, 과거에 노멘끌라뚜라의 특권이 일부 정부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금전적인 지출을 축소시킬 수 있고, 특정한 서비스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던 데에 반해, 이제 그들의 특권은 보다 실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당시 노멘끌라뚜라 집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금지된 것이 허용되며, 이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윤을 얻었다. 대체로 이러한 이윤의 허용이 초기 비즈니스 엘리트의 주요한 특권이 되었다.[9] 즉,

그녀는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을 '자신의 권력을 소유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당, 산업, 꼼소몰 노멘끌라뚜라'로부터 찾고 있다.

구 노멘끌라뚜라의 소비에트체제로부터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의 재편성에 대해 끄릐슈따놉스까야는 어느 정도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1990년대 중반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한다.[10]

〈표 1〉 옐찐 정권하 지배 엘리트의 구 노멘끌라뚜라로부터의 충원 비율 (%)

	최고 지도부	당 엘리트	지역 엘리트	행정부	비즈니스 엘리트	평균
충원비율	75.0	57.1	82.3	74.3	41.0	65.9

〈표 1〉에 의하면 옐찐 정권 하에서 지배 엘리트는 약 2/3가 과거 노멘끌라뚜라로부터 충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최고지도부와 행정부, 지역 엘리트는 약 4/5가 과거 노멘끌라뚜라로부터 충원되었다. 단 비즈니스 엘리트의 경우는 과거 노멘끌라뚜라로부터의 충원 비율(41%)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끄릐슈따놉스까야는 구 노멘끌라뚜라의 재생산에서 비즈니스 엘리트를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현재의 전체 엘리트 다수가 과거 엘리트로부터 대체로 충원되었다는 경향성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부닌(И. М. Бунин)의 경우에는 끄릐슈따놉스까야의 '구 노멘끌라뚜라의 새로운 러시아 엘리트로의 전환 테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즉, 부닌은 내면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위계제도가 붕괴되고 새로운 위계제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 전통적인 엘리트는 적응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변동의 법칙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인물들의 출현에 따라 엘리트가 교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Бунин, 1996: 9).

부닌이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전 러시아 사회여론 연구센터(ВЦИОМ)의 조사에 따르면, 1993년 엘리트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2/3가 1988년에는 엘리트층에 속하지 않았다. 또한 부닌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 역시 '노멘끌라뚜라의 설욕전(реванш: 카드놀이의 용어로써 잃은 패를 다시 따온다는

9) 구체적으로 특권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 합작기업의 창설, 많은 권리를 보유한 조직력, 돈의 자유로운 현금화(обналичивание), 특혜적 대출, 부동산의 거래나 매매, 수출입 업무의 특권, 국가에 의한 국가의 사유화, 콘체른의 설립, 은행체계의 사유화, 분배 체계의 사유화, 수익성 있는 산업체의 사유화 등등(Крыштановская, 1995).

10) 과학 아카데미 사회학 연구소 엘리트 연구 섹터(끄릐슈따놉스까야, 꾸꼴레프 등이 참여)에서 연구된 자료(Крыштановская, 1995: 65).

의미)' 테제가 오류임을 증명하였다고 그는 주장한다(Бунин, 1996: 9).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 엘리트는 압도적 다수가 인텔리, 학자, 교수, 기자 등으로 충원되었으며, 현재의 정치 관료들 대부분도 소비에트 시대에 중간 정도의 지위를 점했고 고위 당 관료들과 연관성이 미약했던 사람들이다.

또한 부닌은 비즈니스 엘리트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계층 전체는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심리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수적으로 우세하고 지배적인 집단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즉, 과거 소비에트 '기업소장들(즉, 전형적인 소비에트 경제 엘리트 출신)'과 '새로운 물결'의 기업가들(새롭게 출발한 비즈니스 엘리트와 일반 비즈니스 계층 모두)에 있어서 이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이 과연 지배적인 것인가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닌은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11] 러시아에서 기업가들의 성공 사례들은 그들의 과거, 소비에트 권력기의 사회적 지위, 혹은 그 시기에 축적된 부와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분석한다. 설문 대상 중에는 '노멘끌라뚜라 사유화' 유형의 기업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과거의 지배층에서 고위직에 있지 못하였다고 답을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멘끌라뚜라가 상업조직을 창설하고 이용했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업가들이 당 자본을 시장경제로 끌어들였다고 부닌은 판단한다. 즉 부닌은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여 비즈니스에서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기술과 인문 계통의 인텔리겐챠'에서 찾고 있다.[12]

부닌은 소비에트 체제에서 주변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인텔리겐챠층이 어떻게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회 심리적 원인을 제시한다(Бунин, 1996). 즉, 기업가들의 최초의 물결은 심리적인 아웃사이더의 특징을 많이 지녔다. 브레즈네프의 '정체' 시기에 미래의 새로운 기업가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아직 능력을 실현시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또한 소비에트 체제와 바깥 세계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정은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대기업가들 중에 비러시아(비슬라브) 민족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물결의 러시아 기업가들은 느린 진행의 서열 위계사다리, 조직 틀 내에서의 경력, 이미 정해진 진급의 길 등등을 지향하는 관료적 정신을 지닌 소비에트 사회의 지배자들과 직접적인 대립물이다.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에 한발 앞서서 시장으로 내달리고, 완강함과 목적지향성을 추구하는 등등의 성격은 새로운 기업가들의 특징이 된

11) 정치기술센터(Центр поли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에서 수행된 1987년 이후 비즈니스에 입문한 사람들(60명의 대기업가, 50명의 중·소기업가, 10명의 국영기업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한 연구(Бунин, 1994).

12) '사회여론'지의 1992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가의 대다수가(71%) 인텔리겐챠 2세대이며, 단지 21%만이 노동자 가족 출신이다(Бунин, 1996: 11).

다.

끄릐슈따놉스까야와 부닌의 입장 차이는 자신들이 근거하고 있는 통계와 설문자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하지만 비즈니스 엘리트의 구노멘끌라뚜라로부터의 충원비율이 정치엘리트의 충원비율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은 서로 일치한다),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전자는 낡은 것의 온존에 후자는 새로운 것의 출현에 각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끄릐슈따놉스까야의 연구대상의 범위는 과거 지배층의 재생산과 대기업가 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부닌의 관점은 새로운 물결로서의 대중적인 기업가 계층의 형성과 인텔리겐챠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 기업가 계층에까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차이점도 있다. 이것은 과연 어떠한 집단이 지금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주된 역동성을 가지는 집단인가의 판단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양자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다면, 현재의 비즈니스 엘리트가 소비에트 노멘끌라뚜라로부터 체제적으로 재생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과정이 일면적이고 직선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시장경제질서에 적합하고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일부의 집단만이 역동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었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III.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정

1.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정

비즈니스 엘리트의 형성과정은 몇 개의 시기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최초의 단계는 형성 준비기로서 대체로 1986-1991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바우처 사유화가 시작된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본격적 형성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성된 비즈니스 엘리트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정치권력과의 유착 및 재편성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시기의 단계를 살펴보고, 다음절(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비즈니스 엘리트(10대 기업가를 중심으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형성 준비기(1986-1991)

최초의 합법적 비즈니스맨들과 사적인 부의 축적은 소련 시대인 1986-88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6년 『개인노동활동에 대하여』와 1988년 『협동조합에 대하여』라는 법령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이 시기까지 지하 경제의 성격을 띤 소규모 사업가들에게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기동성과 민첩성을 지닌 자유로운 기업가 계층의 출현을 자극했다.[13]

따라서 1986-87년의 시기에는 일반적인 기업가 계층의 출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차츰 마련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단순히 정체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틀을 그저 벗어나고자 했던 모험적이고 낭만적인 기업가들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규모의 비즈니스 활동과 부의 축적 가능성은 아직 적었고, 본격적인 비즈니스 엘리트도 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때 자유로운 기업가 계층의 선구자들과 함께 최초로 현재 비즈니스 엘리트의 한 구성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꼼소몰 출신자들(комсомольцы)'이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고르바초프는 소련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로서 '대안경제'(혹은 리가초프(당시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 비서)가 명명한 것처럼 '꼼소몰 경제')를 창안한다. 이에 따라 공산당의 지도 아래 전 소비에트 연방 레닌 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ЦК ВЛКСМ)산하에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Центр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олодежи: 약칭 ЦНТТМ)가 조직되는데, 이것은 사실 소련 최초의 대규모 상업 조직이었다.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꼼소몰 구성원들이었으며, 리가초프의 주도 하에 '꼼소몰 경제'가 시작되었다.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의 보호 하에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허용되었고, '꼼소몰 출신자들'은 많은 특권을 얻었다. 그들의 조직활동 경험, 축적된 관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곧바로 주택조합인 청년 주택 협동조합(молодежные жилищные кооперативы: 약칭 МЖК)과 주택 건축 협동조합(Жилищно-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оперативы: 약칭 ЖСК), 청년 창작 생산연합(Импульс), 시베리아 독립청년 센터(Магистраль) 등의 조직이 탄생되었다. 그들의 손에는 레져 산업, 비디오 시장(주로 해적판), 쇼, 도박 등 아주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이 집중되었다.[14] 이들 꼼소몰 출신자들은 1990년대에 자신감 넘치는 '장사꾼'으로 변모하게 된다.[15] 꼼소몰 출신의 유명한 비즈니스 엘리트로는 호도르꼽스끼(Михаил Ходорковский), 뽀따닌(Владимр Потанин), 자뚤린(Константин Затулин) 등이 있다(Медведев, 1998: 217).

1987-89년의 시기에는 '꼼소몰 출신자들'과 나란히 역시 오늘 날 비즈니스 엘리트의 한 구성 부분인 이공계통의 '물리학자들(Физики)' 출신이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되었다. 처음에 '꼼소몰 출신자들'처럼 '물리학자들'도 바로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НТТМ)와 청년 주택 협동조합(МЖК)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

13) 러시아 기업가 계층의 형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우익(2001)의 논문을 참조.

14) 이 시기에는 경쟁도 약했고,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기보다는 취급하는 물품의 실제 거래 가격과 국가의 공식 가격의 차이에서, 혹은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간의 차이 등등에서 막대한 본원적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었다. 당시에 당의 지원 속에서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엘친 때보다 고르바쵸프 때가 훨씬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기가 쉬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Медведев(1998: 214-219)의 논문을 참조.

15) 1994년에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의 17%가 꼼소몰 경제 기간인 1987-1989년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ВЛКСМ 조직의 출신자들이었다(이즈베스찌야, 1994년 5월 18일).

자와 달리 처음에 그들은 건축이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같은 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향하였다. 하지만 곧 이어 그들도 곧 순수한 투기 부문이나 상품매매분야까지 진출한다.

1989년을 전후하여 비즈니스계로 '국가 고위 관료(начальство)' 출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내던지 듯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였던 모험적 성격의 최초의 기업가 물결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신중하였다. 최초의 기업가 물결이 협동조합을 창설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합작기업, 상업은행, 물품 거래소 등 보다 발전된 사업 형태로 일을 시작했다. 각종 국영기업들이 주식회사로 탈바꿈을 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해당 기업의 관료들이 손에 넣고 통제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인 1988-91년 사이에 소련 은행 체제가 변화되고 경제 활동이 더 자유로와 지면서 비즈니스계로 산업 '관리자들(управленцы)'과 금융 '은행가들(банкиры)'이 들어왔다.

구세대의 은행가들은(당시 평균 53세) 주로 국영 특별 은행을 상업 은행으로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생긴 은행에서 일하며, 또한 그들이 담당하는 은행은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다. 젊은 세대의 은행가들은(당시 평균 36세) 역시 은행업무의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구세대 은행가들과는 달리 그들은 국영 은행에서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의 영역은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맨손에서 시작한 새로운 상업 은행 분야이다. 수익성 있는 고객을 유치하면서 짧은 기간에 새로운 은행들이 국영 특별 은행의 재조직화로부터 생겼다(Куколев, 1995: 165).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가들은 공산당원이었으나 공산당 활동이 법적으로 위축되면서 탈당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 비즈니스 엘리트로는 따라소프(Тарасов), 구신스키(Гусинский), 야코블례프(Яковлев)이다(Медведев, 1998: 220).

이리하여 1986-91년까지 소비에트 구체제의 많은 특권 집단들이 일반 국민에 앞서서 시장경제체제의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초의 한 연구자의 표현에 따르면, '노멘끌라뚜라의 시대는 끝났지만, 노멘끌라뚜라 체제는 남아 있다. 소유물의 관리, 권한, 분배와 점유를 담당하는 특수한 사회-전문적 종사자들 집단으로서의 노멘끌라뚜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일치된 특정한 사회-전문적 인간들 집단으로서의 노멘끌라뚜라, 러시아의 모든 권력과 관리의 기관에서 주요 직위를 보존한 인간들의 집단, 모든 층의 실제적 권력 기관에서 실제적 지위를 80-90% 유지한 인간들의 집단, 경제와 토지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들의 집단',[16]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6) 유리예프(Д. Юрьев)의 주도로 'РФ-политика' 분석 센타에서 행한 연구 결과(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992년 3월 4일).

(2) 본격적 형성기(1992-1995)

1991년의 보수파 쿠데타의 실패와 1992년 바우처 사유화의 시작, 그리고 1993년의 옐친과 의회의 대립은 비즈니스 엘리트 형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91년 8월에 노멘끌라뚜라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변신의 단계로 돌입했다. 보수파들의 불안정한 쿠데타(1991년 8월 19일)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옐친의 당연한 반대급부(1991년 8월 21일)의 결과, 그리고 1991년 8월 24일 옐친 대통령의 공산당 해체 명령으로 노멘끌라뚜라는 더 이상 당-국가의 형태로 조직화된 사회조직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시점에 공산당은 어차피 국민에게 전적으로 신임을 잃었고, 지배계급에 있어서도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노멘끌라뚜라는 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희생물로 쉽게 내던질 수 있었다. 이제 노멘끌라뚜라는 자신으로부터 '당의 껍질'을 떼어내고 그 이후 그들은 외견상 전문관리자들, 국가행정가들, 산업가들, 기업가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권력과 소유의 통제는 여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한편 1991년 8월의 사태를 계기로 당 위원회의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의 서기들이 제 1서기들을 밀어젖히고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공산당과 보수적인 연방 중앙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들은 1992-94년까지 노멘끌라뚜라의 이단계 사유화로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17] 또한 1993년 10월 보수파의 '의회점거' 사건의 실패는 사실상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으며 만약 지금 부를 거머쥐지 않으면 남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구 엘리트에게 각성시키는 신호탄과 다름없었다.

이에 따라 구 노멘끌라뚜라의 비즈니스 엘리트로의 변신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가장 노멘끌라뚜라적 성격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소장들(директора)'이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물밀 듯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비즈니스 엘리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집단이다. '기업소장들'의 출현은 국영 기업의 대중적 사유화로 인한 것으로, 낮은 가격으로 국영 기업을 사유화하면서 기업소장들은 거대한 국가 소유물들을 덩어리째 얻게 되었다. 주식회사로 변한 대규모 사업체가 등장하게 되고 또한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액을 이용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이 늘어나고, 외화 매매와 신용대부의 획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

17) 라보쨔쉐프(Н. Работяжев)는 1987-91년의 시기를 '노멘끌라뚜라 사유화 1단계'로, 그리고 공식적인 바우처 사유화 시기인 1992-94년을 '노멘끌라뚜라 사유화 2단계'로 구분하여 칭하고 있다(Работяжев, 1998: 42-47). 또한 이사예프(В. И. Исаев)는 공식적인 바우처 사유화 시기의 전 단계를 '자발적 사유화'(즉, 국가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노멘끌라뚜라 스스로 국가를 사유화를 했다는 의미), 혹은 '사유화 이전의 사유화'로 칭하기도 한다(Исаев, 2000a: 176).

'기업소장들'은 대기업체의 전문적이고 빈틈없는 요원들이었다. 소비에트 시대에 그들은 기업의 낮은 지위로부터 시작하여 관리자, 비서의 직위를 거쳐 기업소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들이다. 이에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뱌히례프(Рэм Вяхирев(Газпром)), 까단니꼬프(Владимир Каданников(АвтоВАЗ)), 알렉뻬로프(Вагит Алекперов(Лукойл)), 베흐(Николай Бех(КамАЗ))등을 꼽을 수 있다(Медведев, 1998: 222). 그들은 주식 회사화의 결과로 자신의 기업의 많은 주식을 통제하게 되었고 사실 실질적인 거대한 산업 자본의 주인이 되었다.

비즈니스 엘리트의 본격적 형성기인 1992-95년의 시기는 1986-91년의 형성 준비기와 구분되는 몇 가지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낭만적 시기에 대두한 비즈니스 엘리트 집단 즉, 주로 '꼼소몰 출신자들,' '물리학자들,' '국가 관료들'의 비중이 축소된다. 비즈니스 엘리트 중에서 그들의 비율은 62%에서 42%로 낮아졌다. 이 뿐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 심각한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탈자의 15%는 파산하거나 혹은 국외로 이주했고, 85%는 비즈니스계에서 위치가 하락했다. 반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서열이 올라갔다. 이들은 고도의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관리적 잠재성을, 그리고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순응성을 획득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Куколев, 1996: 20).

한편 비즈니스 엘리트의 주요 구성 집단은 '은행가들'과 '기업소장들'이 되었다. 노멘끌라뚜라 출신의 '은행가들'과 '기업소장들'은 급격히 비즈니스 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물론 일부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정력적이고 젊은 층들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기성 비즈니스 엘리트 세대가 전체 비즈니스 엘리트를 주도했다.

둘째, 1993년 이전까지 비즈니스 엘리트의 발전 과정이 주로 양적인 측면의 확대로 이루어졌다면, 1994년부터는 적극적인 내부 세력의 재집단화와 영향력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충분한 자원을 축적하게 된 모회사는 자회사를 창설하기 시작한다. 모회사는 자신의 은행, 주식회사, 보험회사, 백화점 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서구 기업과의 합작 회사, 폰드, 대중 여론 매체, 로비 조직, 때로는 정치정당, 결국은 자신의 확대된 세력 구조의 창출은 논리적인 발전의 귀결이다. 실질적으로 1995년에는 정치계와 연관성이 없는 대기업체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Крыштановская, 1996: 292).

이리하여 결국 1992년부터 시작된 바우처 사유화와 가격 자유화 등에 의한 경제 개혁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형성을 결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기존의 당-산업 노멘끌라뚜라들의 권력을 소유물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특이한 노멘끌라뚜라 자본주의(전체주의도 아니고 서방의 후기산업사회도 아닌 사회)로 변화했다. 단지 이전의 '현실 사회주의'와 다른 것은 일당 지배당과 보편적 국가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다원주의와 몇 가지 민주주의의 요소들이 존재하며,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고, 경제에서는 몇 가지 시장 조직

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은 기본적으로 '현실 사회주의'를 지배했던 사람들(당-국가-산업 노멘끌라뚜라)의 수중으로 집중되었다. 물론 지배집단은 다양한 분야의 인텔리겐챠로 충원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서 묽어졌다. 일반 국민은 권력과 소유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지배집단과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경제 조직은 엄청난 세금과 관료 및 마피아의 착취(공갈, 협박)로 억압을 받는다. 반면 지배집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나라의 경제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에서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는 1980년대 중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중반의 시기에 거쳐 자신의 특수한 역사를 가지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정치권력과의 유착 및 재편성기(1996-현재)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권력과 유착한 올리가르히야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러시아가 처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인한다.[18]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엘친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13인의 성명서'[19]가 당시 3월 가장 유력한 은행가들과 금융산업집단의 지도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연초 3-4%의 국민 지지도만을 얻고 있었던 엘친에게 있어서 그들의 도움은 절실했다. 따라서 이들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엘친의 승리를 위해 서로 힘을 규합하게 되었고, 결국 7월에 엘친은 대통령 당선에 성공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러시아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비즈니스 엘리트가 권력과 유착한 소수과두체제로서 등장한 공식적인 최초의 징표가 되었다. 그 과정은 이후로 계속 진행된다. 엘친의 선거에 참여했던 금융가, 정보 전문가, 지식인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원했다.

1995-1996년경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취하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산업조직의 형태는 금융산업집단(финансово-промыщленные группы)이었다.[20] 1993년부터

18) 비즈니스 엘리트에 대한 '올리가르히야'라는 호칭은 1996년 11월 솔제니친(А. И. Солженицын)에 의해 처음 쓰여졌다. 그는 그들을 150-200명 정도의 견고하고 폐쇄적인 올리가르히야로 특징지웠고, "그러한 새로운 범죄 자본가들의 권력과의 유착은 마침내 러시아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경쟁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것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작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К нынешнему состоянию России', Общая газета, 28.XI.-4.XII. 1996). 대중매체 등에서 올리가르히야라는 호칭이 보다 광범하게 쓰여진 것은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1997-98년에 이른바 '정보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19) 여기에는 베레좁스끼(Б. Березовский), 고르질로프(В. Гордилов), 구신스끼(В. Гусинский), 돈두꼬프(А. Дондуков), 미하일로프(Н. Михайлов), 무라블렌꼬(С. Муравленко), 네즈블린(Л. Незвлин), 니꼴라예프(А. Николаев), 오를로프(Д. Орлов), 뽀따닌(В. Потанин), 스몰렌스끼(А. Смоленский), 프리드만(М. Фридман), 호도르꼽스끼(М. Ходорковский) 등이 속한다.

20) 금융산업집단 형태 외에 당시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여러 형태의 언론대중매체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구신스키의 「엔떼베(НТВ)」와 베레좁스끼의 「오에르떼(ОРТ)」를 들 수 있다.

산업부문간 연합의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강화한 사적인 은행들이 산업기업체에 흥미를 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경제계의 중심집단들이 대규모 금융산업집단의 창설에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1993-4년에는 7개, 1995년에는 21개, 1998년에는 모두 70개 이상의 금융산업집단이 형성되었다(Перегудов, 2000: 74).

그러나 이와 같이 러시아 비즈니스 계가 형태를 갖추어 가고 규모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계와 국가의 관계는 공식적인 사회-경제적 제도적 틀을 통해서가 아니라 협소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즈니스 계의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21]을 앞질러서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국가와의 상호행위에서 주요 주체가 되었고, 그것은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비에트 노멘끌라뚜라들의 재생산 형태를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집단들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Чешков, 1995: 37-38).

- 정치가와 국가 관리(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оры): 과거의 당-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당으로부터 해방되어 많은 특권과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보통 이를 통해 많은 뇌물을 수수한다).
- 관료 부르조아(Бюрократическая буржуазия): 국가 공무원이면서도 자신이나 가족, 혹은 마피아와의 연줄 등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보통 노멘끌라뚜라 사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집단이다.
- 국가 부르조아(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уржуазия): 국영 기업의 고위직 관리자를 일컬으며, 군산복합체, 연료나 원료, 농산업 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다.
- 사적 부르조아(Частнопредпринимктельская буржуазия): 본격적으로 사적인 기업을 경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바로 비즈니스 엘리트)이다.

위의 집단들은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국가나 정계, 혹은 재계이든 서로간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경계를 짓는 것도 의미가 없다. 1995년 12월 국가두마에 53명의 기업가들이 선출되기도 했으며(이들 중 20명은 공산당), 국가부르조아는 사적부문과 많은 관계(합작회사나 주식소유를 통해)가 있고, 관료 부르조아의 경우에도 관료와 기업가의 경계에 위치해 있거나 이들은 다른 집단들과 여러 가지 문제(예를 들어 허가, 세금, 수출입 등의 문제)로 엮여 있다. 과거 공산당은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었던 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클랜'과 연고주의 원칙(심지어 마피아와도)에 기초하여 비공식적 관계로 얽혀 있다(Работяжев, 1998: 49-50).

이렇게 얽히고 섞힌 관계 속에서 주로 금융산업집단 중심의 비즈니스 엘리트

21)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비즈니스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직체로는 정당이나 경제인단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들의 발전과 한계에 대해서는 Исаев(2000a, 2000b)의 논문을 참조.

들은 이제 정치영역에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96년 대통령 선거 당시 '13인 성명' 이후 특히 추바이스(А. Б. Чубайс)와 베레좁스끼(Б. А. Березовский)가 엘친 팀의 주요 인물로 등장했으며, 추바이스는 국가 고위직 관료의 길을 걷게 되고, 베레좁스끼를 중심으로는 '7인의 은행가'라고 불리는 최상층의 재계 집단이 구성되었다.[22] 이것은 단지 로비가 아니라 권력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의미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엘리트들 사이에는 끝없는 경쟁도 발생하여 결국 '7인의 은행가' 그룹은 1997년 8월에 붕괴된다.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이들을 화해시키고 정보전쟁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시도까지 처음 일어나게 되지만,[23]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간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98년에 발생한 세계의 그리고 러시아의 금융 위기는 비즈니스 엘리트의 판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24] 금융계의 세력이 전반적으로 하향되고, 석유, 가스 그리고 루블의 평가 절하로 국내 산업계의 세가 상향되었다. 스몰렌스끼의 「에스베에스-아그로」, 구신스끼의 「메디아-모스트」, 뽀따닌의 「오넥심 방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비노그라도프가 이끈 한 때 유명했던 「인콤 방크」가 완전히 파산했다.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루코일」과 「쑤르구뜨네프가즈」의 단일한 연합 형태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석유기업은 1998년 8월 이후 무질서한 지주회사(홀딩)로부터 수직적이고 통합된 연합기업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 과정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모순적이긴 하지만, 결국 성공적이었다.[25] 또한 1998년 8월에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은행간 임시 동맹이 시작되었다. 「즈베르 방크」 등 12개의 은행이 하나로 묶여지고 나머지 은행들은 러시아 은행 연합(АРБ)의 주도로 통합되었다.[26]

결국 1998년 금융위기는 러시아 시장의 힘의 배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위기 전까지는 수십 개의 금융산업집단들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세 개의 집단으

---

22) 이 별칭은 베레좁스끼가 1996년 「피낸셜 타임」과의 인터뷰 후에 생긴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 경제의 절반 이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구신스끼, 비노그라도프, 호도르꼽스끼, 스몰렌스끼, 뽀따닌, 프리드만이 속한다.

23) 대표적인 기업간의 전쟁으로서 1997년 여름 「스뱌지인베스뜨」의 주식을 둘러싸고 「오넥심 방크」와 베레좁스끼의 지원 하에 있는 구신스끼의 「모스트 방크」 간에 벌어진 분쟁을 들 수 있다. 뽀따닌이 승리하였고, 이 결과 뽀따닌과 구신스끼·베레좁스끼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7인의 은행가' 그룹은 깨지게 되었다. 엘친은 1997년 9월 15일, 1998년 6월 2일 등 여러 기업가들을 크레믈린으로 불러서 화해를 시도했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Мухин(2001: 11-13)의 논문을 참조.

24) 독립신문(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98년 3분기 비즈니스 엘리트의 50위 순위권의 20%가 교체될 정도로 많은 기업가들이 몰락했다(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8년 11월 6일자 8면).

25) 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Перегудов(2000, 76-77)의 논문을 참조.

2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Мухин (2001: 13-14)의 논문을 참조.

로 좁혀졌다. 이것은「가즈프롬」과,「루꼬일」과, 모스크바 시장인 루슈꼬프(Ю. М. Лужков)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 집단이다(перегудов и др., 1999: 97). 한편 새로운 인물들로 아브라모비치(Р. А. Абрамович), 례베졔프(А. Е. Лебедев), 마무뜨(А. Л. Мамут) 등 여러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 1998년 8월 사태 이후 '재벌'들은 그리 많은 것을 잃지 않았고, 그들 중 몇몇은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강화했다. 1999년에 위기는 극복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 정치 관계와 영향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푸틴의 집권기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엘리트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는 일정정도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로 푸틴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비즈니스 엘리트들에게 어떠한 의무도 있지 않다. 즉, 1999년 말의 의회선거와 2000년 초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떠한 짐도 지지 않았다. 둘째로, 지금의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치 행정 엘리트를 끌어들이고 있고, 이 때문에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그들과 미처 연줄을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하고 권력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었다. 셋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어떠한 비호도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권력에 저항하는 구신스끼와 베레좁스끼는 세력을 상실해 갔다.

이와 같이 푸틴의 기존 비즈니스 엘리트들과의 상대적 독립성은 국가와 비즈니스 엘리트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요소이다. 그러나 푸틴의 친정세력에 의한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새로운 충원은 어쨌든 옐친 시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예를 들어 아브라모비치나 밀례르(А. Б. Миллер). 푸틴은 취임 이후 대기업가들과 이미 몇 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러시아 연방정부산하에 기업가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거의 공식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27] 그리하여 푸틴의 시대에 비즈니스 엘리트들과 권력의 밀월 여행의 모습은 과거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1996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권력과 유착하게된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1998년 금융 위기를 겪고, 또 새로운 대통령인 푸틴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국가와 맺었던 상관관계의 형태는 그리 변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강화된 국가 권력 속에서도 새로 선택된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국가의 후원 속에서 보다 강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2. 비즈니스 엘리트의 사회적 배경

본 절에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대 기업가의 대열에 포함되었던 비즈니스 엘리트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배경(출신, 경력, 비즈니스를 하게된 배경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28] 이 시기에 10대 기업가에 포함된 인물들은 모두

27) 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Паппэ (2001: 210-212)의 논문을 참조.

28) 경제와 생활(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주간지에서는 약 50-60명의 전문가(경제학자, 언론인

22명이다(〈표 2〉 참조). 먼저 이들이 1990년대 중반 엘친 시기부터 최근 푸틴 시기까지 10대 기업가의 대열로 들어오고 낙오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95-2001년 기간 러시아 10대 기업가의 재계 순위 변화도

기업가(노어명)	소속기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뱌히레프 (Р. И. Вяхирев)	가즈프롬	1	1	1	1	1	1	-
알렉뻬로프 (В. Ю. Алекперов)	루꼬일	2	2	3	2	2	2	2
호도르꼽스끼 (М. Б. Ходорковский)	유꼬스	3	3	5	7	10	8	7
스몰렌스끼 (А. П. Смоленский)	소유즈그룹	4	4	4	10	-	-	-
구신스끼 (В. А. Гусинский)	모스트메디아	5	5	6	4	7	18	-
비노그라도프 (В. В. Виноградов)	인콤방크	6	7	9	-	-	-	-
뽀따닌 (В. О. Потанин)	국제러시아그룹	7	(제 1 부총리)	2	5	19-20	15	9
베레좁스끼 (Б. А. Березовский)	장관투자자	8	(국가관직 및 국가두마 의원)				20	38
로지오노프 (С. С. Родионов)	제국은행	9	9	13	-	-	-	-
지야꼬프 (А. Ф. Дьяков)	러시아에에에스	10	14	16	-	-	-	-
쁘로호로프 (М. Д. Прохоров)	러시아은행	-	6	11	17	27	29	28
쉬띄로프 (В. М. Штыров)	알로사	33	8	23	22-23	19-20	23	23
까즤민 (А. И. Казьмин)	즈베르방크	-	10	7	6	5	3	6
뿌긴 (Н. А. Пугин)	가즈	24	12	8	11	12	19	-
프리드만 (М. М. Фридман)	알파그룹	25-26	16	10	12	8	7	8
추바이스 (А. Б. Чубайс)	러시아에에에스	(부총리 및 행정부 관료)			3	4	6	2
보그다노프 (В. Л. Богданов)	수르구뜨네프가즈	17	19	17-18	9	6	11	11
뿌가쵸프 (С. В. Пугачёв)	국제산업은행	-	-	30	8	3	4	4
오꿀로프 (В. М. Окулов)	러시아항공	-	-	40	14	9	9	16
아브라모비취 (Р. М. Абрамович)	시베리아석유	-	-	-	-	-	5	3
보로진 (А. Ф. Бородин)	모스크바은행	-	-	43	18	13	10	10
밀레르 (А. Б. Миллер)	가즈프롬	-	-	-	-	-	-	5

바우처 사유화가 종료되고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형성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

등)가 약 150-200명의 대기업가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 정기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순위를 정해서 발표(50위까지만)한다. 순위 평가의 기준은 러시아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력 수준, 기업가의 전문적 자질,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자본의 양 등이다.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4차례 실시하는데, 본 고에서는 매년 종합 평균 순위에서 10위 내에 포함되는 1995년에서 2001년까지의 10대 기업가들 22명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된 1995년도부터 금융위기 전년도인 1997년까지 10대 기업가로 선정된 사람들은 바히례프, 알렉뻬로프, 호도르꼽스끼, 스몰렌스끼, 구신스끼, 비노그라도프, 베례좁스끼, 로지오노프, 지야꼬프(이상 1995년), 쁘로호로프, 쉬띄로프, 까즤민(1996년의 신입), 뿌긴, 프리드만(1997년 신입) 등이다. 일부 낙오자도 생기지만 이들 대부분은 1996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1998년 금융위기 전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13인의 성명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6명이나 될 정도로 정치적 참여도가 높으며, '7인의 은행가'의 7명이 여기에 다 속해 있다.

이 중에서 1996년 당시 옐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활동과 여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바히례프와 알렉뻬로프는 2001년 최근까지도 재계 1-2위의 부동의 위치를 차지했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1990년대 후반까지 최상의 위치였다(단 바히례프는 2001년 하반기에 경질된다). 뽀따닌과 베례좁스끼의 경우는 정계로 진출하여 기업가 순위에서 한 때 빠지기도 하였지만 역시 1990년대 후반까지 정재계 전체에 걸쳐서 그들의 잠재력은 엄청났다. 또한 각종 주요 대중언론매체를 소유한 사람들로서는 베례좁스끼(오에르떼), 스몰렌스끼(엔떼베, 시보드냐), 구신스끼(메디아-모스뜨, 이또기 등) 등을 꼽을 수 있다(물론 나중에 푸틴 시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국가 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쁘로호로프와 까즤민은 1995년도에 재계 50위권에도 들어 있지 않았지만 1996년도에 10위권 안으로 진출하였다. 1991년 뽀따닌과 알게되어 자문역할을 하면서 급성장한 쁘로호로프는 뽀따닌이 부총리직에 임명되면서 「오넥심 방크」 은행장 자리를 잇게 되었고, 까즤민은 1996년 「즈베르 방크」 은행장이 되고 「중앙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10대 기업가로 단숨에 들어서게 되었다(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6년 11월 26일자). '13인의 성명서'와 '7인의 은행가'에 전부 포함된 프리드만은 1997년 '은행 전쟁'에서 승리하여 10대 기업가의 대열로 들어섰다(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7년 11월 13일자). 한편 지야꼬프는 1998년 4월 기업내부의 갈등으로 이사장 자리에서 밀려나고, 로지오노프는 타 은행과의 은행합병에 실패하면서 재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1998년의 금융위기는 재계 판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 위기로 비노그라도프의 「인콤 방크」는 완전히 파산하였고, 스몰렌스키도 그 이후 50위권에서 탈락되었다. 뽀따닌의 「오넥심」 은행과 구신스끼의 「모스트」 은행도 파산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다른 분야의 기업의 도움으로 완전 파산은 모면한다. 바히례프와 알렉뻬로프의 경우에는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한편 1998-2000년도에 뿌가쵸프, 보로진이 몰락한 기존 금융계를 대신하여[29],

29) 「국제산업은행」 장인 뿌가쵸프는 금융위기 시 다른 은행의 도산이 오히려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급부상하였다. 보로진은 1991-94년까지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다가 1994년부터 모스크바 시 경제 금융 문제담당 자문으로 일하였고, 1995년부터 「모스크바 지역은행」 장이 되었다. 1997년부터 막강한 경제력을 소유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루슈꼬프 모스크바 시장

그리고 보그다노프, 오꿀로프와 같은 사람들은 경제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10대 기업가의 대열로 합류하였다. 추바이스의 등장은 준비된 것이었다. 경제학자이자 교수였던 추바이스는 1990년대 다년간 부총리직 등 국가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면서 러시아 사유화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이다. 그는 부총리 시절에 쌓아 두었던 국제금융조직들과의 돈독한 관계 때문에 1998년 금융위기 시 당시 비즈니스 엘리트의 선두에서 경제를 재편해 나가기도 했다.

2000-01년에 10대 기업가의 대열로 들어온 극적인 두 명의 젊은 기업가가 있다. 바로 아브라모비치와 밀례르이다. 아브라모비치는 1992년부터 비즈니스로 뛰어들었다가 1995년부터는 베례좁스끼와 스몰렌스끼와 일한 경력이 있고 이 때부터 시브네프찌의 주식을 소유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 1998-99년에는 소위 옐친 패밀리에 속하기도 하며, 1999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고, 2000년에만 34살의 나이에 10대 기업가의 대열로 들어섰다. 그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밀례르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와 상뻬쩨르부르 시장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1996년부터 뻬쩨르부르그 항만 부서의 기업소장이었다가, 1999-2000년에는 발틱 도관 총 기업소장, 2000년 8월부터는 러연방 에너지부 차관, 2001년 5월부터는「가즈프롬」이사장이 되었다. 밀례르는 뱌히례프의 후임으로 등장했는데, 그의 급부상은 푸틴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01년 7월 31일자).

반면 베례좁스끼와 구신스끼는 최근 푸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 알력관계로 인하여 급격히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쇠퇴해 버렸다. 또한 뱌히례프가 푸틴이 후원하는 밀례르에 의해 밀려났고, 뿌긴의 경우는 사업에 실패하여 재계 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겪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10대 기업가에 포함된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30]

과 모스크바의 각종 세금과 납입금을 영수하고 관리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부터이다(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8년 5월 12일자).

30) 이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표의 작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Федеральная 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лита России: кто есть кто в политике и экономике. Ежегодный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Москва, 2001; Анвар Амиров, Наиболее влияте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России 1999, Москва, 1999; Рейтинг 50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оссии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1996-2001 гг. 〈표 3〉에서 '소비에트 주요 경력'은 1991년 소연방해체시기까지의 경력이며, '러시아 정치·관료 경력'은 그 이후이다. 전자는 주요 정치·경제 경력이 다 포함되지만, 후자는 경제인으로서의 경력(언론 포함)은 제외되고 주요하고 공개적인 정치·관료 경력만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본 절의 본문이나 각주에 기술되는 기업인들의 이력사항에서 별도의 각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전부 위의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표 3〉 1995-2001년 기간 러시아 10대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이름	출생연도	민족	소비에트주요경력	러시아 정치·관료 경력
뱌히레프	1934	러시아	기업소장·산업관료	96년 옐친선거운동 참여
알렉뻬로프	1950	아제르바이잔	기업소장·산업관료	96년 옐친선거운동 참여
호도르꼽스끼	1963	러시아	꼼소몰·금융가	90년대 전반 산업관료 역임
스몰렌스끼	1954	유태인	협동조합가·금융가	-
구신스끼	1952	유태인	협동조합가·금융가	각종 선거운동 참여
비노그라도프	1955	러시아	꼼소몰·금융가	-
뽀따닌	1961	러시아	꼼소몰·금융가	90년대 후반 정치관료 역임
베레좁스끼	1946	유태인	기업소장	90년대 후반 정치관료 역임
로지오노프	1961	러시아	학업후 은행근무	-
지야꼬프	1936	러시아	교수·산업관료	90년대 초반 산업관료 역임
쁘로호로프	1965	러시아	학업후 은행근무	-
쉬띄로프	1953	야꾸찌야	지방산업관료	90년대 초중반 지방정치관료 역임
까즤민	1958	러시아	경제학자·은행근무	90년대 초반 산업관료 역임
뿌긴	1940	러시아	기업소장·산업관료	96년 옐친선거운동 참여
프리드만	1964	유태인	꼼소몰·협동조합가	-
추바이스	1955	러시아	학자·교수·정치관료	90년대 초중반 산업관료 역임
보그다노프	1951	러시아	기업소장	-
뿌가쵸프	1963	러시아	학업 및 은행근무	-
오끌로프	1952	러시아	비행기 조종사	-
아브라모비취	1966	유태인	학업	-
보로진	1967	러시아	학업후 외국은행근무	-
밀레르	1962	러시아	학업후 상뻬쩨르부르그 시장실 근무	90년대 중반 산업관료 역임

먼저 사회 계층별 출신으로 보았을 때 노멘끌라뚜라 출신자들로는 뱌히레프,[31] 알렉뻬료프,[32] 베레좁스끼,[33] 지야꼬프,[34] 쉬띄로프,[35] 뿌긴,[36] 보그다노

31) 뱌히레프는 소연방 시대에 가스산업과 관련한 기업소장과 산업관료(최고 직위는 1986-89년 소연방 가스산업부 제1차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1992년부터 주식회사로 변한 「가즈프롬」의 이사장이었다. 그는 1996년 당시 엘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활동과 여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으며, 기업가들 중에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1990년대 후반까지 최상의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32) 알렉뻬로프 역시 소연방 시대에 석유와 가스산업과 관련한 기업소장과 산업관료(최고 직위는 1991년 소연방 석유 및 가스 산업부 제 1 차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석유회사인 「루코일」의 이사장이 되었다. 역시 1996년 엘친 대통령 선거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고, 엘친의 신뢰자 중의 하나였다.

33) 베레좁스끼는 소연방 시대에 자동차 산업관련 기업소장의 경력을 바탕으로 1993년부

프,[37] 추바이스[38]를 꼽을 수 있다(22명중 8명). 이 중 추바이스(정치관료)를 제외하고 전부 기업소장 혹은 산업관료를 지내면서 부를 형성하여 비즈니스 엘리트의 대열로 들어왔다. 이들이 최초에 담당한 산업분야는 가스, 석유, 전기, 금강석, 자동차 등으로 주요 원료 및 기간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현재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5명뿐이다.

노멘끌라뚜라 주변부층에 위치했던 사람들로는 주로 1980년대 후반부에 꼼소몰이었던 호도르꼽스끼,[39] 비노그라도프,[40] 뽀따닌,[41] 프리드만[42]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꼼소몰 경제' 기간에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꼼소몰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협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스몰렌스끼[43]와 구신스끼[44]이다. 위의 6명은 모두 금융업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 이들 중 프리

터 자동차 회사인「압또바스」의 총기업소장이 되었고 이뿐 아니라 석유, 금융, 언론매체의 분야에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1996-99년 사이에 그는 국가 요직과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했고 체첸 전쟁시는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반대자였던 그는 최근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34) 지야꼬프의 경우는 1984-91년의 시기에 관료(최고 직위는 1991년 러시아연방 연료 에너지부 제1차관)로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경우이다. 1991년부터 전기에너지 회사인「예에에스 러시아」의 이사장이 되었으나, 1998년 4월 주주특별회의의 결정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35) 관료 집안에서 태어난 쉬띄로프는 1991년부터 사하 공화국 부총리직을 수행하다가「러시아-사하 금강석」회사의 이사장이 되면서 기업가로 변신했다. 그의 경우는 관료의 직위를 이용하여 많은 특권을 얻어 기업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36) 뿌긴은 1981-83년에는「가즈」자동차 회사의 기업소장이었으며, 1986-88년에는 소연방 자동차산업부 장관, 1989-91년에는 농업기계부 장관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가즈」자동차 회사의 이사장이 되고, 1996년부터 생산량을 늘리면서 1997년에 10대 기업가의 대열로 들어섰다.

37) 보그다노프는 1984년부터「수르그뜨 네프가즈」회사의 기업소장이었으며, 1996년경부터 하청기업을 재조직하여 상당한 경제력을 지니게 되었고, 1998년에 10대 기업가의 대열로 들어섰다.

38) 추바이스는 1998년에「예에에스(전기에너지 회사)」의 이사장이 되면서 그는 바로 비즈니스 엘리트로 등록되었다.

39) 호도르꼽스끼는 소연방 시대인 1987-89년에 '청년 과학-기술 창조 센터'의 소장이었고, 1993년에는 러시아 연방 연료 및 에너지부 차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40) 비노그라도프는 1983-85년에 꼼소몰 활동을 하다가 1985-88년에는 국영은행에서 일을 하였고, 1992년부터는 러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맹(РСПП)의 이사였다.

41) 뽀따닌은 꼼소몰과 공산당원이었으며 1987-88년에 국영은행에서 일을 했고, 1996년에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직속 세금 및 예산 임시 비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다.

42) 프리드만은 대학시절 적극적인 꼼소몰 활동을 하였으며 1988년부터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하다가 1991년「알파」은행을 설립하였고, 차후 금융, 산업, 상업 부문에 걸친「알파」그룹을 창설했다. 1997년 소위 '은행 전쟁'에서 승리하여 만 34세의 나이에 10대 기업가의 대열로 들어섰다.

43) 스몰렌스끼는 1987-89년에 건축 관련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989년부터「스똘리츠늬」은행으로 금융업을 시작하였고, 1994년에는「엔떼베」방송과「시보드냐」신문 제작에 참여하였다.

드만이 금융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고, 호도르꼽스끼와 뽀따닌은 1990년대보다는 약화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채 잔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도태되었다.

22명중 나머지 8인은 전부 소비에트 시대에는 학업 중이었거나 일반 관료 혹은 사무원으로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노멘끌라뚜라 출신자가 아니다. 여기에는 로지오노프, 쁘로호로프, 까즤민, 뿌가쵸프, 오꿀로프, 아브라모비치, 보로진, 밀레르가 포함되며 이들은 인텔리겐챠 출신자들이다.

로지오노프, 쁘로호로프(뽀따닌 연줄), 까즤민, 뿌가쵸프, 보로진(루슈꼬프 연줄)은 80년대 후반 은행(혹은 외국계 은행)에서 관료, 경제학자, 사무원 등으로 일하다가 지위가 오르거나 직접 은행을 설립하든지, 혹은 1990년대에 들어와 정재계 실력자와 연줄이 생기거나 국가 관료직을 역임하면서 비즈니스 엘리트가 되었다. 이들 모두 30대의 나이에 10대 기업가의 대열에 들어섰다.

오꿀로프는 비행기 조종사였다가 1997년부터 「아에로플로트」 항공사의 총 기업소장이 되었다. 1998년 금융위기 시 루블의 하락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경쟁력이 생기면서 「아에로플로트」도 이익을 얻었고 이 때 10대 기업가의 대열로 들어섰다(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48호).

아브라모치비와 밀레르 역시 소비에트 시대에는 학업 중이었다가 각각 옐친과 푸틴의 패밀리에 속하면서 각각 주요 산업분야인 석유와 가스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정치적 영향력도 최상급에 있다.

따라서 22명의 10대 기업가들 중에서 노멘끌라뚜라 출신자들은 8명으로 약 1/3이며, 노멘끌라뚜라 주변층 출신자들은 6명, 인텔리겐챠 출신자들은 8명이다.

22명 모두 학력은 고등교육을 받았고(최소 대졸), 일부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교수의 위치에 있었을 만큼 고학력자라고 할 수 있다. 출신민족은 비러시아계(비루스끼)가 7명으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유태계가 5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0대 기업가의 평균연령은 매년 점차 하향추세에 있다. 1995년에 평균 43.8세에서 2001년에는 40.1세로 낮아졌다. 1999년에 일시 44.8세까지 올라가지만, 만약 10대 기업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1세씩 평균연령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즉, 1995년에 비해 2001년에는 평균 연령이 약 50세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평균 연령조차도 점차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

44) 구신스끼는 연극학교를 졸업하고 영화감독을 한 적도 있지만 이러한 경력은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1986-88년까지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하다가 1989년 「모스트」 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업으로 성공했다. 1993년에는 모스크바 시장인 루슈꼬프(Ю. Лужков)로부터 모스크바 시의 많은 금융업무의 권한을 얻어 경제력이 확장된다. 이외에도 그는 「메디아 모스트」, 「옌떼베」, 「에호 모스크바」, 「이또기」, 「시보드냐」 등의 언론대중매체 사업에도 관여했다.

이리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막강한 정치력까지 소유할 수 있었던 10대 기업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인물들로 재구성되고 있다. 1995년 당시의 10대 기업가 중에서 알렉뻬로프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도롭스끼와 뽀따닌은 그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도 많이 하향하였고 나머지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반면 까즈민, 프리드만, 추바이스, 뿌긴, 아브라모비치, 보로진, 밀례르와 같은 새로운 사람들이 10대 기업가이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비즈니스 엘리트로 등장을 하였다. 1990년대 중반의 10대 기업가 중 9명이 노멘끌라뚜라 출신자나 주변부층이었다고 한다면, 2002년에는 절반으로 줄었다. 결국 대비즈니스 엘리트 사이에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교체가 과연 진정한 변화인가에는 의구심이 있다. 소비에트 시대의 지배층 출신이 아니며 또한 보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대기업가들로 부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오늘의 위치에 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들 대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는 지배층 인물들과의 연줄 속에서, 그리고 후원 속에서 성장했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 하의 러시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엘리트 세대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체의 지배 엘리트 체제의 유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현대 러시아 비즈니스 엘리트는 지배 엘리트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정치·경제 엘리트 전체의 차원에서 조망되어야할 집단이지만, 동시에 이 집단은 전체 지배 엘리트 내에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적인 엘리트 집단이다. 이들은 소련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사회 구조 변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러시아 시장경제의 강력한 버팀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 엘리트는 자신의 권력을 소유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당, 산업, 꼼소몰 노멘끌라뚜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활동과 자본을 합법화시키고자 했던 지하경제의 범법자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여 '비즈니스'에서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기술과 인문 계통의 인텔리겐챠 등의 출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권력과 유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구조 속에서 독립적이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떠한 시기와 나라에 비해서도 유래 없이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던 대통령의 권력은 만약 그것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었기에 비즈니스 엘리트는 이를 위해 내달렸고 결국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비즈니스 엘리트들이 형성되던 시점에는 주로 소비에트 노멘끌라뚜라 출신자들이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점차 과거의 지배 엘리트와는 연관이 없었던 인텔리겐챠 출신자들이 조역에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기원과 형성을 소비에트 노멘끌라뚜라의 재생산 과정으로부터만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질서와 비즈니스 문화는 현재 러시아 사회를 광범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의 노멘끌라뚜라 출신자들이 여전히 현 체제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만약 그들이 과거의 구습을 고집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젊고 시장경제체제에 적응력이 빠른 인텔리겐챠 출신의 새로운 세대의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등장은 앞으로 계속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소비에트 시대의 지배 체제가 시장경제의 현대 러시아에 재생산되어 계속 유지되는 한, 그리고 정경유착의 현상이 지속되는 한 비즈니스 엘리트의 세대 교체는 근본적인 것일 수 없다. 현재 러시아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과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맞물려 있다. 지배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개혁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던 이유는 소비에트 시대에 이에 상응할만한 중간 계층이나 그 밖의 사회 계층이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러시아에서 중간 계층의 형성은 요원한 상태이지만, 그리고 시장경제가 진행되면서 거대한 부를 쌓은 집단에 가려서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그늘에는 하찮아 보여도 의지에 넘치는 국민들의 광범한 밑바닥으로부터의 시장경제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중간층이 사회의 기반이 되어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사회 세력의 중심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면, 비즈니스 엘리트의 새로운 세대도 정치 엘리트에 종속되고 정치 권력에 유착된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경제와 사회 질서를 건설하는 혁신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최우익. 2000.「현대 러시아의 사회 계급·계층 변화」.『슬라브 학보』제15권 1호. 한국슬라브학회. pp.419-448.

_____. 2001.「시장경제 러시아의 새로운 사회 계층」.『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서울: 일신사. pp.117-150.

Kryshtanovskaya, Olga & White, Stephen. 1996.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48(5). pp.711-733.

Lane, David and Cameron, Ross. 1999.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to Capitalism: Ruling Elites from Gorbachev to Yeltsin.* New York: St. Martin's Press. pp.167-182.

Hughes, James. 1997. "Sub-national Elites and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in Russia: A Reply to Kryshtanovskaya & White." *Europe-Asia Studies* 49(6). pp.1017-1036.

Анвар Амиров. 1999. *Наиболее влияте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России 1999.* Москва.

Бунин И. М. 1994 "Новые российси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леи." *Бизнесмены России. 40 историй успеха*, Москва. сс.365-415.

_____. 1996 "Бизнес-элита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Власть* №9. сс.9-19.

Дж. Хоскинг. 1994.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17-1991.* Москва.

Зудин А. Ю. 1999 "Олигархия как полит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ткоммунизма."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1. сс.45-65.

Исаев В. Ф. 2000(a). "Бизнес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в России: аспект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ые знания* №5. сс.175-189.

_____. 2000(b). "Бизнес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в России: аспект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ые знания* №6. сс.157-173.

Кива А. В. 2000. "Российская олигархия: общее и особенное."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 сс.18-28.

Крыштановская О. В. 1993. "Новая российская элита." *Социально-страцифик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ср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Книжка 2, Под ред. З. Т. Голенкова, Москва. сс.182-194.

_____. 1995.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тарой номенклатуры в новую российскую элиту."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1. сс.51-65.

_____. 1996.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тарой номенклатуры в новую российскую элиту."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и страцификац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тв. ред. З. Т. Голенкова, Москва. сс.269-294.

Куколев И. В. 1995(a). "Формиров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бизнес-элиты."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журнал* №3. сс.159-169.

_____. 1995(b). "Современная бизнес-элита России." *Вестник МГУ. серия 18. Социология и политология* №4. сс.12-22.

_____. 1996. "Формирование бизнес-эли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2. сс.12-23.

Медведев Р. 1998. "Новый класс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апитализм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сс.214-233.

Мухин А. А. 2001. *Бизнес-элит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власть: кто владеет*

Россией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Москва.

Оников Л. А. 1996. *КПСС: анатомия распада*. Москва.

Партий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1981.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Москва.

Перегудов С. П., Лапина Н. Ю., Семененко И. С. 1999. *Группы интересов и росси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Москва.

Перегудов С. П. 2000. "Корпоративный капитал в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е." *ПОЛИС* №4. сс.72-81.

Паппэ Я. Ш. 2001. "Государство и крупный бизнес: что осталось старого в их отношениях(2000 г. - начало 2001 г.)." *Кто и куда стремится вести Россию?* Москва. сс.206-212.

Пихоя Р. Г. 2000. "От номенклатуры к олигархии. Функционально-социальная группа на пути к сословию." *Куда идёт Россия?*. Москва. сс.68-81.

Работяжев Н. 1998. "К вопросу о генезисе и сущности номенклатурного капитализма в России."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 Москва. сс.38-51.

Федеральная 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лита России: кто есть кто в политике и экономике. 2001. Ежегодный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Москва.

Хоскинг Дж. 1994.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17-1991*. Москва.

Чешков М. А. 1995 "'Вечно живая' номенклатура?",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6. сс.32-43.

"Рейтинг 50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оссии"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1996-2001 гг.

"50 наиболее влияте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996-2001 гг.

Formation of the Business-Elite in Current Russia:
Origin, Process of Formation and Future Prospect

Choi Woo-ik
Researcher, Institute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 of the business-elite in current Russia. The business-elite is a group capable of mobilizing and controlling financial-economic resources advantageous to its own means through collusion with political powers. As the leading group promoting transformation of Russia to a market economy, it also functions as a contributor in securing material proprietary rights of the existing ruling elite. The business-elite originates from three different strata : one of which is the party-industry-Komsomol nomenklatura, in hope of successfully converting their political power into economic proprietorship, another is the lawbreakers of the underground economy with the intention of legalizing their business and capital activities, and lastly, technological and humanistic intelligentsias, unsatisfied with their social standing, aspiring to achieve self realization through business.

Beginning its business in the late 1980s, it was formed into a major social group during the nomenklatura privatization process soon thereafter, and by the mid 90s, finally succeeded in joining together with the political powers. Up until then, former Soviet nomenklatura was the major players in the field. But from the late 1990's to present, intelligentsias who had no previous relation to the ruling party rose as the leading actor. The appearance of a new generation of business-elite is inevitable, as it will be more flexible in adapting to the market economy.

But there exists serious doubt as to whether this change is a fundamental shift in generation. It is true that these non-Soviet, younger-generation of business-elite have rose as the major businessmen of Russia, but they could not have secured their position today with mere ability and effort. What they are today is a result of close alliance with the past ruling elite and their continuos support. In conclusion, it is justifiable to say that there appears to be a new generation of business-elites in Russia, but still only under the sustaining ruling elite system.

최우익.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러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02)880-6014(O). E-mail: wooikchoi@yahoo.co.kr.